지역 소식통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원안가결 된 2016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예산현액은 7,458억원으로 7,713원을 징수결정하고 7,608억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8%의 수납률을 나타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1.12%인 6,050억원이 지출되고 93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478억원이 불용되었다.

예산집행률이 전년보다 4.45%보다 상승하였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하여 균형 재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지적되었으며,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여성·가족친화 거리 디자인 선정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이건식)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원년의 해를 맞아 특화된 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시는 21일 2층 상황실에서 손삼국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 교수, 시의원, 주민대표 및 사회단체장과 관련 부서장등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가족친화 거리 디자인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제안사로부터 여성가족친화 거리 컨셉과 스토리텔링에 따른 조형물·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주제 적합성 창의성 스토리텔링의 적정성 시민 정서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유지관리의 지속성과 안전성 등 총 5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주민들이 직접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 활성을 위해 완주군이 설명회를 연다.

완주군은 '읍면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및 위원 교육'을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관내 13개 읍면을 대표하는 지역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봉동, 구이, 고산 3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와 함께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이해를 사례중심으로 설명,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완주=이중복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총력

이건식 김제시장, 현안사업 정부예산 반영 건의활동 전개

이건식 김제시장은 2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김제시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건의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부처예산에 미 반영된 '김제육교 재 가설사업',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 '용지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쟁점사항을 집중 설명하고 2018년도 국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김제육교 재 가설은 국비 지원비율과 총사업비 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장애가 있으므로 조속한 총사업비 결정과 재 가설에 필요한 '2018년도 국비 9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과 20개 종자기업 입주진행 중으로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타당성용역에 필요한 국비 3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용지정착농원의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현업축사 매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부처예산에 반영되어 기재부에서 심의중인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건립(1.2억원)', '김제지평선축제 글로벌육성축제 지원(3.6억원)'에 대해 부처반영 예산이 삭감되지 않기 위해 예산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은 국회 김종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대통령공약사항에 포함된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이 반드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2018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들에 대해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500원 으뜸택시, 든든한 이동수단으로

월 평균 2223명 이용

완주군이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는 마을 주민을 위해 도입한 '500원 으뜸택시'가 든든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일 완주군은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500원 으뜸택시의 총 이용건수는 5만3,34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월 평균 2,223명이 이용한 것이다.

특히 해가 갈수록 으뜸택시를 애용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2015년 이용건수는 2만3,866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615건(23.5%)이 증가한 2만9,481건을 기록하는 등 주민의 교통복지를 담당한 든든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완주군의 으뜸택시는 시내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500m 이상인 산간·오지·벽지마을과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신청을 받아 운행 중에 있다.

완주군이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는 마을 주민을 위해 도입한 '500원 으뜸택시'가 든든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3일에 첫 운행을 시작한 으뜸택시는 현재 9개 읍·면,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1인당 요금이 500원에 불과해 주민이 1회 이용시 평균 1인당 3400원의 요금혜택을 받는데다, 택시 운송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5대 우수정책사례로 선정된 것은 물론, 완주군이 대중교통시책 평가에서 전국 5위로 평가받는데 원동력 역할을 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 가져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21일 김제시 백산면 원조마을 회관에 농약안전보관함 55개를 보급하고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 제막식 및 생명지킴이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하여 도의원 및 시의원, 한국자살예방협회, 전북도 정신건강 관계자, 마을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의 자살기도방법 조사에 따르면 자살자 중 약물 및 농약음독이 전체 68%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김제시도 지난 3년간 평균 34명이 자살, 11명이 농약음독자살 하는 등 김제지역 내 농약음독에 따른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농약안전보관함을 통해 충동적인 자살시도를 사전 차단하고 자살예방의 능동적 대처를 하고자 실시된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정과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는 농촌지역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사업주관으로 시행되었다.

해마다 농약보급사업을 통해 농약음독에 따른 자살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동적인 자살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통하여 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최정만

명로진

임진모

서민

유명 석학들, 완주에 온다

'인문독서 콘서트' 내달 군립중앙도서관서

임진모, 서민 등 석학들이 완주에 뜬다.

21일 완주군립중앙도서관은 다음달 4일부터 8월 8일까지 6주 동안 '2017 완주군 인문독서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문독서콘서트에는 건축, 인문고전,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강사들을 초청해 폭 넓은 인문학적 사고를 소개한다.

우선 7월 4일(화)에는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이기도 한 최정만 패시브건축협회장이 '패시브 건축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날 강연에서 최 회장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13일(목)에는 '날아라 삑삑이', '비비를 돌려줘', '다시 동화를 읽는다면' 등 다수의 생태동화를 쓴 권오준 작가가 '자연에서 배우는 크리에이티브'를 주제로 강단에 선다.

20일(목)에는 '짧고 굵은 고전읽기', '나이 롱 글쓰기', '누구냐? 넌!' 등을 저술한 작가이자 방송인인 명로진 인디라이터 연구소 대표가 '고전은 드라마'를 주제로 강연한다.

뒤이어 27일에는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완주를 찾는다. 최근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입담을 뽐내기도 했던 임 평론가는 '대중음악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강연을 이끈다.

인문독서콘서트 다섯 번째 주자는 김경집 가톨릭대 교수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청소년을 위한 진로인문학'의 저자이기도 한 김 교수는 8월 3일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를 주제로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독서콘서트 대미는 서민 단국대 교수가 장식한다. 다양한 방송출연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서 교수는 '기생충 & 독서'에 대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인문독서콘서트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중앙도서관 3층에서 진행되며, 전화 290-2659나 완주군립중앙도서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지평선시네마 개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영화사 친구와 김제시가 주관하는 '2017 작은영화관 기획전-김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지평선시네마에서 개최된다.

이번 '2017 작은영화관 기획전-김제'는 지역 주민의 영화영상문화 향유를 위하여 '보는 것을 넘어 배우고 즐기는' 주제로 4개 섹션, 11편의 영화프로그램을 24회의 영화상영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룰루랄라, 영화랑 놀자' 섹션에서는 〈꼬마버스 타요의 에이스 구출작전〉, 〈미니 자이언트〉,〈슈퍼스파이:수상한 임무〉를 비롯해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새로운 악당의 습격〉, 〈토마스와 친구들 : 용감한 기관차와 괴물소동〉 등 5편의 영화를 통해 우정, 모험, 환상 등 흥미진진한 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 관객을 찾을 예정이다.

'무럭무럭 성장영화' 섹션의 〈너의 이름은〉, 〈우리들〉은 한 뼘 더 자라는 성장통,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한층 더 성숙해지는 영화속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럭키〉는 냉혹한 킬러로 열연하는 팔색조 매력의 유해진의 출연으로 코믹함과 감동을 만날 수 있는 영화이다.

'아프니까, 가족이다' 섹션에서는 좀비를 소재로 한 대한민국 재난 블록버스터 〈부산행〉과 사회적 갈등, 소시민 영웅, 우정, 희생을 그린 원전재난 영화〈판도라〉를 통해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영화는 선율을 타고' 섹션에서는 전 세계 음악영화 팬들을 사로잡은 〈라라랜드〉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로 꿈과 사랑을 노래하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환 JCI 전 북 지 구 청 년 회 의 소 영

전남·광주·전북(형제)지구 JC 간담회

-함지웅 전남지구회장-

-정환균 광주지구회장-

-장승필 전북지구회장-

**형제(전남·광주·전북)지구 JC 간담회
전북 방문을 환영합니다.

▶일시/장소: 2017년 6월 24일(토)~25일(일), 모항 해나루
▶참석대상
- 전남, 광주, 전북지구JC 회장단 및 감사 상무위원, 롬회장
- 한국JC 임원, 역대지구회장, 역대임원 등
▶주최: 전북지구청년회의소 (지구회장 장승필)
▶주관: 정읍청년회의소 (회장 김선홍)

세부 일정(안)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6/24 (토)	15:00~16:00	등록 및 방배정	모항 해나루	
	16:30~17:30	개회식		
	18:00~21:00	석식 및 우정의 밤		
6/25 (일)	08:00~08:30	기상		
	08:30~09:30	조식 및 휴식		
	09:30~10:30	어린이 교통캠페인		
	10:30	해단식		